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Drinking Motives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일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분석대상은 249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주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스트레스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문제 음주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도 문제 음주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주동기로 개인적인 문제나 부적절한 정서 상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음주하는 대처동기, 사교적인 활동, 모임 등을 흥겹게 하고 즐기기 위해 음주하는 사교동기, 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키기 위해 음주하는 고양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이었다. 이에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 사교적인 활동, 모임 등 음주를 선택하는 음주동기를 살펴보고, 음주가 아닌 다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학교 단위의 음주에 대한 교육 및 절주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drinking motives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249 college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Nov to Dec 2016.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showed that drinking motives were the biggest factor influencing their problem drinking with coping, social, enhancement and conformity motives exerting special effects on it. As for correlations with problem drinking, interpersonal and ongoing task stress of life stres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problem drinking. Coping, social, enhancement, and conformity motives also had positive relations with problem drinking. Drinking motives had critical effects on the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with coping, social, and enhancement motives strongly impacting on it. The findings necessitate examining the drinking motives of college students to make them choose to drink including negative emotions, social activities, and gatherings in order to prevent their problem drinking. These factors could explain 33% of the problem drinking. It is also required to develop methods for them to utilize resources other than drinking and run drinking education and temperance programs at the school level.

Keywords : Depression, Drinking, Drinking motivation, Life stress, Problem drinki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Jungwon University Research Grants

*Corresponding Author : Jong-Im Kim(Jungwon University)

Tel : +82-43-830-8841 email : jikim17@jwu.ac.kr

Received February 15, 2017

Revised (1st March 20, 2017, 2nd April 19, 2017)

Accepted May 12, 2017

Published Ma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술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윤택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인간관계 및 구성원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인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1]. 특히 대학생의 음주는 다양한 대학생활에서 친교를 위한 활동으로 부터 유발되어지며[2], 선, 후배나 친구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과음으로 인한 문제음주는 신체적 건강, 폭력, 성문제등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 또한 대학생의 음주는 대학생활의 거의 모든 행사 후에 음주가 강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음주사고 발생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 50%이상은 폭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 대학생 음주 실태로 문제음주 행위 점수인 AUDIT-K점수 비율이 남학생 8.2%, 여학생 28.3%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3배 높게 나타났다[5]. 이와 같은 대학생 음주비율로 볼 때,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 행위는 건강과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및 음주행위에 대한 개입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되는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이성교제, 경제적 문제, 장래문제, 학업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6],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하며, 문제음주는 개인의 건강, 학업, 대인관계 및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이완되기도 하고, 학업중단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켜서 의료비 및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7]. 이와 같이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음주 동기는 음주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로서, Cox와 Klinger는[8] 음주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음주동기를 거쳐서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음주 동기는 음주에 이르는 경로로 음주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큰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의 영향요인으로 우울은 음주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벗어나

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문제음주와 알코올 남용 가능성이 높아 우울이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9]. 따라서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과 문제음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생의 음주관련 연구는 문제음주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문제음주의 요인으로 연령, 종교, 음주동기[10], 우울[11], 스트레스[12], 음주환경[13], 등이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음주와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우울의 변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따른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별 문제음주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문제음주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학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J대학교에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고(1044297-HR-201610-019-02) 설문을 하였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익명성 보장 및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설문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256부 이었고,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4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14]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05,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인 0.15, 예측변수 7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0.90,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30명이 요구 되어 본 연구대상자인 249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과 음주동기, 문제음주, 생활스트레스, 우울 등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평소 스트레스 정도, 음주경험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문제음주(알코올 사용 장애 척도 한국판;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문제음주는 과음, 의존, 음주 관련된 사회적 문제 등 심각성이 있는 음주 상태로[18] 문제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알코올장애 간이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를 사용하였다. 이는 음주문제의 위험이 있는 성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1989년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6개국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Lee 등[18]이 번안하고 한국 실정에 맞춰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음주빈도의 양 3문항, 의존 증상의 여부 4문항, 알코올로 야기된 문제 여부 3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전체 점수범위는 0-40점이며, 전체의 합이 높을수록 음주를 하는 빈도, 음주의존도 및 유해한 사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AUDIT-K는 조기에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Kim 등[19]의 연구에서 한국인에게 적용한 결과 12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의 기준을 12점으로 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0.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0.89로 나타났다.

2.3.2 생활 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 및 중요도[20]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on, Kim, Yi[2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스트레스 척도는 대인관계 차원인 이성과의 관계 6문항, 친구와의 관계 5문항, 교수와의 관계 6문항, 가족 간의 관계 6문항과 당면문제 차원인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7문항, 가치관문제 5문항, 학업문제 등 8개 하위요인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개발당시 전체 Cronbach's α 값은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0.88이었다.

2.3.3 음주동기

음주동기는 술을 마시는 이유, 음주를 하도록 하는 힘의 원천으로[15],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동기,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Shin[16]이 Cox와 Kilnger[8]의 음주동기 척도와 Cooper[15]의 음주동기 척도에 기초하여 개발한 16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세분화된 음주동기인 고양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 사교동기의 음주동기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양동기(enhancement motives)는 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이며, 대처동기(coping motives)는 개인적인 문제나 부적절한 정서 상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동조동기(conformity motives)는 주변인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주위 사람들을 따라서 음주하는 것, 사교 동기(social motives)는 사교적인 활동, 모임 등을 흥겹게 하고 즐기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을 말한다[17]. 각각의 음주 동기는 4개 문항으로 총 16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의 합이 클수록 음주동기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고양동기 0.76, 대처동기 0.89, 동조동기 0.80, 사교동기 0.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88이었다.

2.3.4 우울(CES-D)

부정적 정서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21]를 Chon, Choe, Yang[22]이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에 대해

지난 1주 동안의 경험빈도를 4점 Likert 척도로 하였다. 20문항 중 긍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의 범위는 0에서 60으로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22] 하였다. CES-D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0.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0.80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문제음주 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 ANOVA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생활스트레스, 우울, 음주동기와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문제음주

전체 조사대상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문제음주 상태는 Table 1과 같다. 총 249명의 대학생 성별로는 남자가 34명(13.7%), 여자가 215명(83.3%), 문제음주 평균은 남자 19.44로 나타났고, 여자 19.28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72명(28.9%), 2학년 72명(28.9%), 3학년 73명(29.3%), 4학년 32명(10.2%)으로 1학년이 문제음주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21.37). 거주형태는 기숙사 224명(90.6%)으로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며, 종교는 기독교 47명(18.9%), 천주교 20명(8.0%), 불교 12명(4.8%), 기타(무교 포함) 120명(68.9%)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에서는 담배를 피운다는 군은 13명(5.2%)로 문제음주 평균은 22.00으로 나타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군은 138명(94.8%)으로 문제음주평균은 19.15로 나타났다($p = .073$). 수면시간은 하루 5-6시간이 156명(62.7%), 문제음주 평균은 20.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 7-8시간이 72명(28.9%)으로 문제

Table 1. Problem drinking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49)

Variables		n	%	Problem drinking		
				M $\pm$ SD	t/F	p
Gender	Male	34	13.7	19.44 $\pm$ 5.11	1.70	.188
	Female	215	83.3	19.28 $\pm$ 6.38		
Grade	Freshman	72	28.9	21.37 $\pm$ 7.39	1.35	.132
	Sophomore	72	28.9	19.58 $\pm$ 5.84		
	Junior	73	29.3	17.65 $\pm$ 5.05		
	Senior	32	10.2	17.81 $\pm$ 5.28		
Type of residency	Dormitory	224	90.6	19.49 $\pm$ 6.08	.53	.055
	Boarding house	9	3.6	17.33 $\pm$ 4.27		
	Parent's house	16	6.4	17.87 $\pm$ 8.60		
Religion	Protestant	47	18.9	18.4 $\pm$ 5.45	.59	.941
	Roman catholic	20	8.0	22.80 $\pm$ 9.20		
	Buddhism	12	4.8	17.25 $\pm$ 5.81		
	Others	120	68.9	19.33 $\pm$ 5.90		
Having smoke	Yes	13	5.2	22.00 $\pm$ 8.77	3.25	.073
	No	236	94.8	19.15 $\pm$ 6.13		
Friend of the opposite sex	Yes	111	44.6	19.67 $\pm$ 5.76	.90	.341
	No	138	55.4	19.01 $\pm$ 6.54		
Sleep time	9-10hr	2	.8	19.99 $\pm$ 7.07	.98	.494
	7-8hr	72	28.9	17.94 $\pm$ 4.93		
	5-6hr	156	62.7	20.00 $\pm$ 6.73		
	<4hr	19	7.6	18.00 $\pm$ 5.33		
Usual stress level	Low	19	7.6	19.31 $\pm$ 5.18	1.02	.436
	Average	133	53.4	18.36 $\pm$ 5.48		
	High	97	39.0	20.60 $\pm$ 7.10		
Total		249	100.0	19.30 $\pm$ 6.21		

Table 2. Problem drinking according to drinking experiences

(N=249)

Variables	n	%	Problem drinking		
			M±SD	t/F	p
Drinking quantity	250cc of beer or less	17	6.8	12.42±2.65	8.25 .000
	One 500cc glass of beer	32	12.9	13.79±3.05	
	Two 500cc glasses of beer	49	19.7	16.43±4.17	
	Three to four 500cc glasses of beer	68	27.3	19.9±5.15	
	Five to seven 500cc glasses of beer	55	22.1	23.92±4.96	
	Eight 500cc glasses of beer	28	11.2	24.34±7.54	
Drinking frequency	Rarely	15	6.0	13.27±5.23	7.22 .000
	1-4 times a year	23	10.8	14.52±4.72	
	Once a month	70	38.1	16.19±3.61	
	2-3 times a month	104	41.8	20.85±4.92	
	2-3 times a week	33	13.3	27.12±6.84	
Drinking velocity	Very slowly	23	9.2	13.42±2.94	2.67 .000
	Slowly	44	17.7	16.39±5.56	
	Average	100	40.2	19.63±5.70	
	Fast	74	29.7	22.16±6.32	
	Very fast	8	3.2	23.83±8.51	
Total	249	100.0			

음주는 17.94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평소스트레스 정도는 보통이라는 군은 133명(53.4%), 문제음주평균은 18.36으로 나타났으며, 평소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군은 97명(39.0%), 문제음주평균은 20.60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음주경험별 문제음주

음주경험별 문제음주의 상태는 Table 2와 같다. 음주량은 맥주 500cc 3-4잔이 68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문제음주 평균은 19.9으로 나타났으며, 맥주 500cc 5-7잔은 55명(22.1%), 문제음주 평균은 23.92, 맥주 500cc 8잔은 28명(11.2%)으로 문제음주 평균은 24.34로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문제음주 상태는 높아졌다($p<.001$). 음주횟수는 한 달에 2-3회 104명(41.8%), 문제음주는 20.85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1회는 70명(38.1%)으로 문제음주 평균(16.19), 일주일에 2-3회는 33명(13.3%)으로 문제음주 평균이 27.12로 높았다($p<.001$). 마시는 속도는 보통속도로 마신다는 군은 100명(40.2%), 문제음주 평균은 19.63, 빨리 마신다는 군은 74명(29.7%), 문제음주 평균이 22.16으로 음주량, 음주횟수, 음주속도는 문제음주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Table 2).

3.3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수준별 문제음주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수준별 문제음주의 평균 점수는 Table 3과 같다. 문제음주의 점수 범위는 0-4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9.30으로 나타났다($p<.001$). 생활스트레스는 점수 범위가 1-20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86.42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생활스트레스는 점수 범위가 1-92점, 평균값은 30.79로 나타났으며,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점수범위 1-108점, 평균값은 51.79로 나타났다($p<.001$). 음주 동기의 점수범위는 1-8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0.27로 나타났으며, 대처 동기는 점수범위가 1-20점으로 평균값은 10.42, 사고 동기는 점수범위가 1-20점으로 평균값은 12.16, 고양 동기는 점수범위가 1-20점으로 평균값은 9.67, 동조 동기는 점수범위가 8.02로 나타났다($p<.001$). 우울은 점수범위가 0-6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21.10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세 없는 군은 104명(41.8%), 문제음주 상태는 18.06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세가 있는 군은 145명(58.2%), 문제음주 평균이 높게(20.20) 나타났다($p=.012$)(Table 3).

3.4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과 문제음주와의 관련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과 문제음주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4와 같다. 문제음주와 음주동기($r=.56$,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으며, 각각의 세분화된 동기와 관련성을 살펴보면, 대처동기($r=.52$, $p<.001$), 사고동기($r=.47$, $p<.001$), 고양

Table 3. Problem drinking according to life stress, drinking motives, and depression

(N=249)

Variables	M±SD	Range	n	%	Problem drinking		
					M±SD	t/F	p
Problem drinking	9.30±6.21	0-40	249	100		15.34	.000
(AUDIT score)							
Normal drinking group>12			159	63.9	15.52±2.89		
Risky drinking group≤12			90	39.1	25.98±4.71		
Life stress	86.42±18.75	1-200					.000
Interpersonal	30.79±8.90	1-92					
Ongoing task	51.97±11.76	1-108					
Drinking motives	40.27±11.47	1-80					.000
Coping motives	10.42±4.41	1-20					
Social motives	12.16±3.30	1-20					
Enhancement motives	9.67±3.30	1-20					
Conformity motives	8.02±2.08	1-20					
Depression	21.10±10.48	0-60				6.47	.012
Depression(No)>16			104	41.8	18.06±5.37		
Depression(Yes)≤16			145	58.2	20.20±6.63		
Total			249	100.0			

동기($r=.50, p<.001$), 동조동기($r=.25, p<.001$)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당면과제 스트레스($r=.48, p<.001$)는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으며, 대인관계스트레스와 음주동기 중 대처 동기($r=.17, p=.007$), 고양동기($r=.15, p=.013$), 동조동기($r=.24, p<.001$), 우울($r=.41, p<.001$)과 양의관계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 중 당면과제는 음주동기의 대처동기와($r=.17, p=.006$)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우울과($r=.58, p<.001$)도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음주동기 중 대처동기는 사교동기($r=.50, p<.001$), 고양동기($r=.61,$

$p<.001$), 동조동기($r=.37, p<.001$)와 양의관계로 나타났으며. 대처동기와 우울($r=.27, p<.001$)도 양의관계로 나타났다. 음주동기 중 사교동기는 고양동기($r=.63, p<.001$), 동조동기($r=.51, p<.001$)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우울($r=.14, p=.022$)과도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음주동기 중 고양동기는 동조동기($r=.48, p<.001$), 우울($r=.19, p=.002$)로 나타났고, 음주동기 중 동조동기는 우울과($r=.23, p<.001$)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문제음주는 음기동기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가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Relations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life stress, drinking motives, and depression

(N=249)

Variables	1	2-1	2-2	3-1	3-2	3-3	3-4	4
		r(p)	r(p)	r(p)	r(p)	r(p)	r(p)	r(p)
1. Problem drinking	1							
2. Life stress	.081 (.202)							
2-1. Interpersonal	.042 (.507)	1						
2-2. Ongoing task	.096 (.131)	.481 ^{**} (.000)	1					
3. Drinking motives	.560 ^{**} (.000)	.218 ^{**} (.001)						
3-1. Coping motives	.520 ^{**} (.000)	.172 ^{**} (.007)	.172 ^{**} (.006)	1				
3-2. Social motives	.471 ^{**} (.000)	.016 (.806)	.169 ^{**} (.007)	.502 ^{**} (.000)	1			
3-3. Enhancement motives	.501 ^{**} (.000)	.157 [*] (.013)	.153 [*] (.016)	.614 ^{**} (.000)	.631 ^{**} (.000)	1		
3-4. Conformity motives	.258 ^{**} (.000)	.249 ^{**} (.000)	.111 (.081)	.377 ^{**} (.000)	.510 ^{**} (.000)	.489 ^{**} (.000)	1	
4. Depression	.062 (.326)	.416 ^{**} (.000)	.587 ^{**} (.000)	.277 ^{**} (.000)	.146 [*] (.022)	.198 ^{**} (.002)	.234 ^{**} (.000)	1

**= $p<.001$, *= $p<.00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2.884	1.241		-2.323	.021
Coping motives	.429	.094	.305	4.579	.000
Social motives	.376	.127	.200	2.949	.003
Enhancement motives	.376	.127	.187	2.524	.012
$R^2=.347$, Adj $R^2=.339$, $p<.001$					

3.5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제음주를 종속변수로 생활스트레스, 우울, 음주동기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생활스트레스의 대인관계스트레스, 당면과제스트레스, 우울, 음주동기의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 동기동기 등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투입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각각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7개의 변수를 모두 투입한 다변량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높은 관련성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정도가 높은 상태인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정도가 높은 상태인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분석하였다.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460-1.705으로 기준인 10.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도 0.586-0.685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더빈-왓슨(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969로 2.025-1.532범위 기준 값인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주동기가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처동기($\beta=.30$, $p<.001$), 사교동기($\beta=.20$, $p=.003$), 고양동기($\beta=.18$, $p=.012$)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들 요인의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값이 .33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이었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와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등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주동기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의 문제음주 평균은 남자 19.44, 여자 19.28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문제음주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평소 스트레스에서는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군이 문제 음주 평균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1학년과 대학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학교행사 참여가 많은 저학년의 학교활동이 음주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연구에서도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은 음주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술을 더 많이 마시며[23], 대학재학 기간은 생애에 걸쳐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고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이에 따라 대학생의 신입생환영회나 각종 동아리 O.T, M.T에서는 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신입생부터 교육의 시행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음주경험에서는 음주횟수가 월 2-3회라고 응답한 학생이 41.8%, 이들의 문제음주 평균도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횟수와 음주량, 마시는 속도가 빠를수록 문제음주 평균도 높았다. Park과 Jeon[25]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우울, 음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문제음주로 인해 우울을 증대시켜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생 음주경험이 문제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의 문제음주 수준은 AUDIT-K로 측정한 결과, 위험음주군은 전체의 39%로 이는 대한보

건협회[2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실태를 조사한 알코올 사용 장애 고 위험군으로 남성 15%, 여성 33% 보다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증가하는 문제음주는 음주의존 및 중독으로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적 관리 및 해결을 위해 문제음주의 특성과 관련요인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스트레스에서는 대인관계와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정도가 문제음주의 정도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중간이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부적응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속적 스트레스는 우울을 동반하게 되고 우울증상은 음주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이에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예술 활동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학교생활에 긍정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문제음주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유의성을 보이며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증세가 있는 학생 관리 및 우울 외에 영향요인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주동기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동기 중 대처동기는 개인적인 문제나 부적절한 정서 상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 고양동기는 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 사교동기는 사교적인 활동, 모임 등을 흥겹게 하고 즐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개인적인 문제나 모임, 기념을 하기 위한 대처동기, 고양동기, 사교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 동기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Rhee[28]의 결과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대처동기가 음주문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Kim[2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음주에 음주동기는 문제음주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결정요인으로[17] 대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생활과 정서조절 등 음주동기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문제음주는 실제적, 잠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위험음주군의 경우 고혈압, 위장관출혈, 수면장애, 우울증, 출혈성 뇌졸중 및 간경화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므로

[30] 대학생들이 문제음주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절주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주동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 등은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문제음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내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하고, 음주폐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전문적인 보건교육 및 예방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부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제음주와 각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등을 적용하여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분석대상은 249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주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생활스트레스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문제 음주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 도 문제 음주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이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주동기로 대처동기, 사교동기, 고양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부정적 정서, 사교적인 활동, 모임 등 음주를 선택하는 음주동기를 살펴보고, 음주가 아닌 다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학교 단위의 음주에 대한 교육 및 절주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후 문제음주의 정상 군과 장애 군으로 나누어 문제음주에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위해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문제음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연구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H. S. Rhu, M. J. Baek, "Factors Influencing the drinking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3, no. 3, pp. 307-315, 2012.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2.23.3.307>
- [2] A. C. Carter, K. O. Brandon, M. S. Goldman, "The college and noncollege experience: A review of then factors that influence drinking behavior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Drugs*, vol. 71, no. 5, pp. 742-750, 2010.
DOI: <https://doi.org/10.15288/jsad.2010.71.742>
- [3] S. H. Lee, S. E. Chung, "Drinking, experi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Womens Health*, vol. 12, no. 1, pp. 1-19, 2011.
- [4] K. H. Suh, S. A. Yang, "The role of alcohol use as coping method with stress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vol. 18, no. 1, pp. 331-352, 2011.
- [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internet) Seoul, 2013.
- [6] M. K. Kang, I. K. Kim,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inking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8, pp. 5053-5061,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8.5053>
- [7] Ministry of Health Welfare, 2015, Available Form;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accessed Dec, 20, 2015)
- [8] W. M. Cox, E. Klinger, "A Motivational model for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97, no. 2, pp. 168-190,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97.2.168>
- [9] N. S. Kim,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influencing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Optimism and coping skil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19, no. 5, pp. 719-728, 2007.
- [10] J. R. Joeng, E. Y. Kim, Y. J. Lee, S. A. Choi, J. K. Kim, "The Effects of Psychosocial factors on college students' drinking motives: focused on depressio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2, pp. 293-308,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2.201504.293>
- [11] S. K. Chung,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Korean college student drinking behavior", *Korea Journal Family therapy*, vol. 16, no. 1, pp. 113-134, 2008.
- [12] S. I. Benton, S. A. Benton, R. G. Downey, "College student drinking, attitudes toward risks, and drinking consequenc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 vol. 67, no. 1, pp. 5436-5551, 2006.
DOI: <https://doi.org/10.15288/jsa.2006.67.543>
- [13] G. E. Kim, N. A. Cho. "The Effects of drinking environment on the degree of youth drinking: Moderating effects of the interaction of parents and adolescent",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9, no. 11, pp. 45-68, 2012.
- [1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15] M. L. Cooper,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61, no. 2, pp. 117-128, 1994.
DOI: <https://doi.org/10.1037/1040-3590.6.2.117>
- [16] H. U.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5, no. 1, pp. 93-109, 1999.
- [17] O. Kim, H. O. Jeon, "Relationship of drinking motives and alcohol consumption in Korean male office workers", *Psychological Reports; Diability & Tranma*, vol. 111, no. 3, pp. 963-970, 2012.
- [18] B. U. Lee, C. H. Lee, P. G. Lee, M. J. Namk, "AUDIT :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Korea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vol. 4, no. 2, pp. 83-92, 2000.
- [19] J. S. Kim, M. K. Oh, B. K. Park, M. K. Lee, G. J. Kim, "Screening criteria of alcoholism by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20, no. 9, pp. 1152-1159, 1999.
- [20] K. K. Chon, K. H. Kim,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 316-335, 2000.
- [21]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
- [22] K. K. Chon, S. J. Choe, B. C. Yang,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in the Korean Versi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vol. 6, no. 1, pp. 59-76, 2001.
- [23] B. Borsari, J. G. Muprhy, N. P. Barnett, "Predictors of alcohol use during the first year of colleg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ddiction Behaviors*, Vol. 32, No. 10, pp. 2062-2086, 2007.
DOI: <https://doi.org/10.1016/j.addbeh.2007.01.017>
- [24] D. S. Hasin, F. S. Stinson, E. Ogburn, B. F. Grant, "Prevalence, correlates, disability, and comorbidity of DSM-IV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64, pp. 830-842, 2007.

DOI: <https://doi.org/10.1001/archpsyc.64.7.830>

- [25] M. H. Park, H. O. Jeon, "The Influence of health behavior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n depression among Korean female problem drink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844-7854,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844>
- [26] Survey Report on Drinking Status and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http://www.kpha.or.kr/>, 2012.
- [27] M. P. Martens, E. S. Hatchett, R. M. Fowler, K. M. Fleming, "Prospective behavioral strateg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5, no. 4, pp. 535-541, 2008.
DOI: <https://doi.org/10.1037/a0013588>
- [28] J. H. Rhee, "A study on antecedents of employee's drinking behavior and its relationship with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 no. 1, pp. 33-52, 2005.
- [29] S. O. Kim, "A study drinking motives, self efficacy, drinking problem in male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 3, pp. 270-280, 2006.
- [30] B. H. Jeon, H. C. Noh, W. Kim, S. E. Kim, S. J. Lee, D. H. Lee, "Does the drinking behavior of interns and residents affect their attitudes toward the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and referral treatment",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vol. 21, no. 4, pp. 495-497, 2010.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 지역사회 간호, 노인간호,